

“가뭄·태풍 등 기후변화 대비 저수지 물그릇 키워야”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풍수해 재난예방 워크숍’
재난대책 담당자 역량 향상
ICT 융합 재난 시스템 필요



최근 대전 KT대덕2연구센터에서 열린 ‘2017 풍수해 대비 재난예방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갈 수록 농촌·농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경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가뭄과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온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최근 대전 KT대덕2연구센터에서 공사 및 지자체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7 풍수해 대비 재난예방 워크숍’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대책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 시연을 통해 ICT 기술이 융합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가뭄대비 10년 한발빈도(경북대 최경숙 교수) ▲저수지 지진방재(충북대 박종화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관리 전략(전남대 윤광식 교수) ▲이상강우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건국대 김성준 교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늘어온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공감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경북대 최경숙 교수는 “가뭄의 발생빈도와 피해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한발빈도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해면적이 33만 8000ha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해면

적인 10만3000ha보다 3배 이상 넓은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한발빈도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건국대 김성준 교수는 “기후변화와 이상강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저수지를 보강하고 저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등 저수용량 증대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극심한 가뭄과 대형 홍수에 대응하며, 내진보강을 통해 강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1분기 실적 앞두고 박스권 장세
글로벌 증시 숨고르기 전망
통신·전력·유통업종 관심 필요

1월 증순 이후 2,08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지수는 3월들어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에 힘입어 21일에는 2,182포인트까지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코스피지수 최고치 2,189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철회로 미국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중심으로 조정을 보였고 코스피지수도 2,160포인트에서 2주연속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보인 가운데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화학, 철강금속업종이 반등했고 실적우려로 운수장비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라 환차익을 기대하며 3월에만 3조5250억원을 순매수 했지만 기관은 펀드환매 및 차익실현으로 3조660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상승을 제한했다. 코스닥시장은 기관의 순매도가 약화되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619포인트까지 상승 마감했다. 2011년 이후 길고 긴 박스권을 보인 코스피지수가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언론과 시장 일각에서 이른바 ‘한국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은 미국증시의 트럼프효과가 약화되고 있고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우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대선을 통한 유럽연합 탈퇴가능성 부각 등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신용위험증가와 북한 김정은정권 도발 리스크 증가 등이 4월 위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요약된다.

국회 국민전선의 르펜이 4월 23일 1차투표에 승리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5월 결선투표에서 당선되며 프랑스의 EU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유럽공동체가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그 충격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은행 파산에 버금가는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르펜이 당선된다면 하더라도 영국과 달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가 프랑을 다시 도입하고 EU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던 글로벌증시시대 국내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제조업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분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월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발표에서 계절적비수기와 환율하락에도 스마트폰 신제품출시와 반도체 호황으로 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4월 글로벌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4월위기설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현시장 주도주군인 IT 및 소재에 대한 저점매수기회로 볼 수 있으며 조정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통신 전력 유통업종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전남본부 ‘농가소득 증대 최우수사무소’ 선정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농가소득 증대 추진 우수사무소’ 시상식에서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 전남농협은 올해 전국 최초로 광역지치단체(전남도)와 협력 사업을 통해 관내 21개 지역농협에 농촌인력증개센터를 개설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농업경쟁력 절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상은 농협중앙회가 2020년 농가소득 5000

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우수 추진사례를 공모하여 매 분기별 우수 사무소 3개소를 선정·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전남농협이 최초로 수상했다. 이흥묵 본부장은 전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절감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광주농협 농업인조합원 자녀 입학축하금 전달

48명에 3650만원 지원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은 최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자녀 입학축하금 전달식’을 했다. 해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서광주농협은 이번 전달식에서 농업인조합원 자녀 고등학교 입학자 23명, 대학교 입학자 25명에게 총 36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전달했다.

문병우 조합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미래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광주농협은 지난 2002년부터 조합원 자녀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84명에게 총 5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37억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조합원들에게 28억7000만원을 배당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3>신안동, 해송빌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8902-7900 	<h3>장성, 전원주택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평당6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h3>급매 오피스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5500만원 (일시불 조건)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h3>나주, ㄷ 근린주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8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	---	--